논어 19편 자장 16장 · 쓰기 연습

曾子曰：「堂堂乎張也，難與並爲仁矣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曾 子 曰 堂 堂 乎 張 也 難 與 並 爲

仁 矣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